한국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 정책형성과정 분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Formul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Nurturing the Bio-medical Sector: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Bio-medical Complexes of Korea

정용일(Yong-il Jeong)*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핵심어 : 생명의료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책형성,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

Ⅰ. 서론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정책을 육성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첨단 의료산업은 고위험·고부가가치의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열악한 국내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경로를 창조하고자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박재룡·박용규, 2005: 2-3).

첨단의료복합단지(이후 '첨복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첨복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

* 정용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yijeong@kisti.re.kr

※ 본 연구는 정용일의 박사학위논문(2012)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정책형성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Allison 모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일부를 발췌, 보완하였습니다.

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첨복단지 조성과정에는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의료산업선진화와 첨복단지 조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05년 당시 한국은 IMF 체제 이후 중앙집권적, 노동집약적 산업진흥 중심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제도혁신에 기반한 행정개혁, 금융자유화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 편입과 함께 개방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1997년의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산업정책은 과도한 국가개입과 과잉규제가 아닌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였고, 기술추격중심의 모방모델에서 기술, 정책 그리고 제도(시스템)가 결합된 기술혁신체제구축 모델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국내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 등의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을 적용하여 주요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역할과 방식으로 관여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앨리슨 모형의 고찰

1. 앨리슨 모형의 개념 및 의의

정책형성은 복잡다기한 사건이 개입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최근의 정책형성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가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책형성(기획) 및 분석,' '정책과정 및 집행' 그리고 '정책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정책학은 과학적인 방법론과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며, 특히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가치지향적 문제에 중점을 둔다(Miller & Fox, 2007). 대부분의 정책과정은 정책기획,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가 단계별로 추진되는 일방적 전개가 아닌 정책행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상, 투쟁 및 조정에 의한 반복적 과정(Sabatier, 1988: 130)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형성은 "사회집단간의 이해의 조정이나 정치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특정하여 그 대체 해결안을 둘러싼 사회 및 정부 내에서의 논의나 그 정치적 결정 또는 비결정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학대사전, 2010).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 주요 모형중 하나인 앨리슨 모형은 Graham T. Allison이 쿠바미사일위기사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행태모형 및 정부정치모형을 각각 적용한데서 유래하였다(Allison, 1971; 이기태 외, 2010).[1] 앨리슨 모형의 경우는 대부분 단일 또는 다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모형의 주요 요소 및 모형간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연구였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외교안보 및 대외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및 제도화 등의 입법화과정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도출되었다. 주로 특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주류의 이론이나 대립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특정 사례를 분류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승현, 2008: 308). 앨리슨 모형을 적용한 국내의 주요 연구도 주로 정치, 외교안보, 군사 및 대북정책 분야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외교안보 분야 이외에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의 사례분석에도 많이 적용되었다.

1) 1971년 Allison의 '결정의 에센스(Essens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 세상에 소개되었다.

2. 앨리슨 모형의 주요 요소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앨리슨 모형은 분석의 기본단위, 주요한 구성개념, 주요 추론형태 그리고 일반적인 명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모형의 기본 개념은 우선 행위주체로서 정부는 단일의 합리적 의사결정자이고, 다음으로 행동은 국가의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부의 행동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이다(Allison & Zelikow, 1999). 합리적 행위자모형의 주요 관심대상은 문제특성, 대안 및 수단, 선택방안, 가치 및 원칙 그리고 전략적 압력 등이 있다.

조직행태모형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에 고유한 논리와 맥락, 조직적 능력과 문화 그리고 절차를 강조한다. 따라서 행동이나 선택은 정형화된 행위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대조직의 산출물이다. 조직행태모형에서 관심의 대상은 기존의 조직구성, 하부조직의 기능, 정보획득방법, 대안규정방식, 표준행동절차(SOP) 및 법규 등이다.

정부정치모형은 주로 정부 내의 정치행위와 과정에 초점을 둔다. 정부의 행동과 선택은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연출한 협상게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정책행위자들, 행위자들의 문제인식과 입장을 결정하는 요인들, 상호 경쟁하는 종합절차 또는 행동채널 그리고 행위자들의 게임능력, 즉 조정능력과 협상기술이다. <표 1>과 같이 앨리슨 모형에 포함된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행태모형 그리고 정부정치모형을 통하여 조직관, 권력소재, 행위자의 목표와 공유정도, 결정 양태 및 일관성을 적용하여 다원적이고 종합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표 1> Allison 모형의 주요 내용 및 특성

구분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행태모형	정부정치모형
조직관	조정통제가 잘된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소재	조직의 두뇌만 최고지도자가 보유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하위조직의 목표	조직+하위조직+개별 행위자 목표
목표 공유도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결정 양태	최고지도자가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추출	정치게임 규칙에 따라 타협과 흥정이 지배
결정 일관성	매우 강함: 항상 일관성	약함: 자주 바뀜	매우 약함: 거의 일치 하지 않음

자료 : 정정길 외(2008: 553)

Ⅲ.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책형성 과정분석

1. 정책행위자의 역할 및 입장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던 핵심 정책이고 첨단 산업육성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나 관련 전문가들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참여정책, 혁신정책 그리고 균형정책을 기조로 삼

은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클러스터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이론을 실제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생명의료기술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중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관련 부처가 연계된 분야라서 부처 간 조정이나 협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생명의료기술 분야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갖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많고 국민들이 항상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이다(이상규 외, 2008).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부처들이 노무현 정부가 정권 초기인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선정에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었다. 특히 IT 산업 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생명의료산업을 선점하여 정부 내 정책 주도권을 행사고자 부처 간에 상호 경쟁하였지만 의료산업선진화와 첨복단지 조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기조에는 차이가 없었다. 생명의료산업에 대한 주무 관장 권한을 어느 부처가 행사하는가에 대한 부처간 주도권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첨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상황하에서 의료산업선진화와 첨복단지 조성이라는 총론에 대한 국가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단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추진방안과 제도화만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의 구성 개념 및 형태분석

1) 분석의 기본단위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정부를 의인화하여 의도적 행동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의사결정체로 인식한다. 즉 의사결정행위자로서의 정부는 행동의 논리를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인 것이다(Allison & Zelikow, 1999). 일반적으로 산업클러스터는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산업단지 승인 및 운영을 지원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대부분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신약, 장기 및 의료기기 분야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하여 적극 육성하였다(신업자원부, 2003). 또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지원하였다(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7).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등의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육성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국회차원에서는 여야가 상호 협력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생명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합리적이고 통합된 선택과 행동이 두드러진다. 특히 첨복단지 조성정책 제도화단계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2005년 8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분석의 기본단위는 주로 합리적 행위자모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2) 구성 개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첨복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약, 장기 및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되고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협력하여 첨복단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절차적 완결을 짓고자 하였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정부가 중점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의료산업선진화를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하여 일관되고 합리적 대안선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청와대 보좌관, 과학기술분야의 명망가 등 소수의 핵심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이상적인 방안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황우석 사건, 한미 FTA 타결 등 정치사회적 사건들에 의하여 추진체제가 조정되었다(매일경제신문사, 2005; 보건의료산업단체연합, 2005).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파견된 전문 관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추진 주체들은 이상적인 초기 방안을 현실적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별법 제정 과정은 공식적인 정부조직 및 관료의 실무능력과 예산극대화 노력이 결합하였기에 제한된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된 법안 작업과정에서 국무조정실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 상황을 탐색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예산처 등에서 파견된 전문 관료들이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예산극대화를 위해 특별법을 조직의 산출물 차원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직행태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3) 주요 추론 형태

합리적 행위자모형에서 정부는 국가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단일한 유기체로서 활동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공공·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하여 생명·안전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생명의료산업은 정부차원의 산업육성정책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식품, 건강산업 등 생명의료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했다. 정부는 생명의료산업 발전의 선결 과제인 신약 개발 및 첨단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중개 및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의료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2005년 정부는 의료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국정홍보처, 2005.). 2006년 1월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국정홍보처,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통해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일반적인 명제 구성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첨단 산업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필요성 및 목적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단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권교체 시기에 첨복단지특

별법을 제정하였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통하여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단일한 유기체로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행동은 합리적 행위자모형으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사례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정책행위자의 입장과 역할을 앨리슨 모형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정부가 주도로 추진한 전형적인 첨단산업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IT 산업 이후 생명의료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육성하고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Allison 모형을 첨복단지 조성정책형성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첨단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개 및 임상연구 중심의 연구개발 인프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의 전략적 발굴·육성을 위한 정부의 행태는 효용 극대화를 통한 합리적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주로 합리적 행위자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첨복단지 조성정책의 경우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소수의 명망가와 핵심적인 정책선도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황우석사건, 한미FTA 타결 등의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추진주체들이 교체되는 등의 한계상황을 맞이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한에 맞추어 전문 관료들에 의해 첨복단지특별법의 입법이 서둘러 추진되었다. 당시 전문 관료들은 정부개입의 명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면서 관련 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의 성과주의에 기반한 전형적인 예산극대화로 볼 수 있다.[2)]

<표 2>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앨리슨 모형 분석결과

구분	사례분석 결과	적용 모형
분석 단위	-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택하고 추진한 전략적 행위임	합리모형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과 의료산업선진화를 통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행위임	합리모형
구성 개념	- 행위자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정부	합리모형
	-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하여 일관되고 합리적 대안 선택을 위하여 노력함	합리모형
	-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정부가 중점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의료산업선진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됨	합리모형
	- 초기 정책의제설정은 소수의 핵심 관계자 중심의 이상적인 대안에서 출발하였지만 황우석 사건 등 정치사회적 상황들을 거치면서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 및 관료의 예산극대화을 위한 노력에 의하여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음	조직모형
	- 첨복단지 조성정책은 대통령의 추진의지에 근거하여 정부차원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야간 정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특별법으로 제도화되었음	합리모형
추론 형태	-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첨단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함	합리모형
일반 명제	- 정부가 첨복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료산업분야의 당면 과제인 중개연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함	합리모형

2) 정부조직 및 전문 관료들의 행태는 신고전경제학의 공공선택론에 의거하여 관료들이 권력 확대를 위하여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 모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2008),「정책학」, 서울: 박영사.

김승현. (2008). 행정학분야의 실증적 사례연구에 관한 분석과 평가.「정부학연구」. 14(4): 293-319.

박재룡·박용규 (2005),「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신문사. (2005)「세상을 바꾸는 과학자, 황우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보건의료단체연합 (2005),「'황우석' 관련 진실은 모두 규명되어야 하고, 정부의 허구에 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2005.12.15).

산업자원부 (2003).「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개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확정-」, 서울: 산업자원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7),「의료산업선진화백서」, 서울: 국무조정실

이기태 외. (2010). 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방송통신연구」.71: 135-163.

이상규·노영진·최윤희. (2008).「바이오산업의 발전모형 개발과 산업혁신 전략 - 미국 바이오산업의 협력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이선희. (2005).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Allison 모형에 의한 강압외교 정책사례 비교분석.「전략연구」35: 113-15523.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8).「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2009),「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한국사전연구회 (2010),「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허출. (2004).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앨리슨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전쟁 시기별 비교분석.「한국정책학회보」. 13(8): 233-257.

Allison, Graham T.,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_____ & Zelikow, P.(1999).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New York: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김태현 역(2005).『결정의 엣센스』. 서울: 모음북스.

DiMasia, J. & Grabowski, H (2007), "The cost of biopharmaceutical R&D: Is biotech different?",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8, 469-479.

Miller, Hugh. & Charles Fox (2007), *Postmodern Public Adminstration*. Revised Edition. Armonk: M. E. Sharpe.

OECD (2010), *Biomedicine and Health Innovation: Synthesis Report.* Paris: OECD.

Pisano, G (2006), *Science business: The promise, the reality, and the future of biotech,*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Role of Policy 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1): 129-68.

국무조정실: http://www.pmo.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http://www.mke.go.kr

청와대(국정홍보처): http://www.president.go.kr